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10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10. 22.(목) 12:00

□ 장　　소 : 여수MBC 4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이현규 위원, 김대희 위원(이상 6인)

□ 불참위원 : 박종일 위원, 박배연 위원, 이지호 위원, 천현진 위원, 최태민 위원(이상 5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이상 4인)

2026년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애숙 위원님과 천지연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16일자로 임기를 마치셨고, 안인수 위원님도 소속 회사 퇴직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열한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달라진 만큼 앞으로 시청자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시는 지역의 변화와 방송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여수MBC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담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수MBC의 보도와 프로그램,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10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 대표이사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으며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센터장
10월은 여수 · 순천 10 · 19사건이 있는 달인 만큼 지역적으로 의미가 크고 무거운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78주기이고 곧 80주기를 맞게 되는 만큼 관련 프로그램을 최대한 기획 ·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주 4 · 3사건이나 광주 5 · 18민주화운동과 비교해 여순사건이 아직 국가적 기념과 기억의 차원에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역방송의 편성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어바웃 우리동네」에서도 섬박람회와 여순사건 관련 아이템을 편성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녹화한 제16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를 10월 10일 방송했으며 이후 재방송도 진행했습니다.

「비렁길」은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10월 19일 MBC 네트워크특선으로 전국 방송됐고 다음 날 재방송도 편성했습니다.
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 「한국의 둘레길」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역프로그램대상 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9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78주기 여수 · 순천 10 · 19사건 합동추념식은 10월 19일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렸으며 광주 · 목포 · 여수MBC가 공동으로 생방송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특별시의회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광주 · 목포 · 여수MBC가 공동 생방송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중요 영상자료 보존을 위해 여수MBC 특집 프로그램 5편의 제공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직도 못 다 부른 노래」 외 4편을 보존용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1월에는 고흥 관련 특집 프로그램 「지금은 고흥」을 제작해 11월 5일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흥 유자축제와 연계한 「트로트클라쓰」 특집을 제작해 11월 12일 축제 개막에 맞춰 녹화할 예정입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이후 후속 절차와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라디오전망대」의 라전법정과 인터뷰 등을 통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과 이후 논란 등을 다뤘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흥행과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라디오전망대」 뉴스브리핑과 이슈첵 등을 통해 부실 운영 논란, 먹거리 문제, 교통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짚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을 요청해 주신 만큼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여순사건 78주기 특집 주간’을 편성해 인터뷰와 강연,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등을 연속 방송했습니다.
시청자 의견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광수 보도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장
지난 9월 시청자위원회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주요 취재 · 보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개막 특집 뉴스 이후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밀착 취재하고 있습니다.
흥행 부진과 무료 입장객 문제, 먹거리 논란, 행사 운영 과정의 대응 문제 등을 취재했으며 일부 보도는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사 종료 이후 사

후 활용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국립의대 문제는 순천대가 후보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목포대가 제기한 소송과 가처분 신청, 법원의 판단, 이후 정부 절차 등을 계속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달라진 고향, 고향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6일간 기획보도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명절 보도가 연휴 현장 스케치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미리 콘텐츠를 준비해 고향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연휴 기간 지역의 가볼 만한 곳, 지방선거 이후 지역 정치 · 행정의 변화, 드론으로 돌아본 달라진 고향, 벌초와 선산관리 문화의 변화 등을 다뤘으며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제78주기 여수 · 순천 10 · 19사건을 맞아서는 「미완의 10 · 19, 국가가 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진행했습니다.
희생자 파악과 진상규명, 첫 진상조사보고서에 담길 국가폭력의 범위, 암매장지와 유해 발굴, 생존자의 증언, 특별법의 성과와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전남 동부권 주요 현안과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종료에 맞춰 행사 전반을 약 5편의 기획리포트로 종합평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의회와 동부권 시 ·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각 지자체의 2027년도 예산안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상황, 동절기 취약계층 복지와 지역 민생경제 대책도 주요 취재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이후 후속 절차와 지역 의료체계 문제는 가처분 소송과 정부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흥행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 대응 논란, 체험 콘텐츠 보강, 먹거리 문제, 무료 입장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재편의 실행 과정과 고용 영향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 철강산업의 미래, 반도체산업과의 연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보도했습니다.
인구감소와 여수 · 순천 · 광양 생활권 변화 문제 역시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과 지역 정책, 새로운 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인 만큼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용우 방송사업센터장은 지역MBC 광고책임자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기타부서 주요 추진업무와 계획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번 추석 기획보도를 좋게 봤습니다.
명절 현장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스토리텔링해 지역의 변화와 미래를 보여준 점이 좋았습니다.
여순사건 기획보도 역시 추념식이나 현안만 단편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미완의 10 · 19, 국가가 답할 때」라는 큰 주제 아래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 보도한 점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전망대」에서도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다뤘습니다.
다만 인터뷰를 활용하는 과정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보도의 핵심 내용과 실제 방송에 사용되는 인터뷰가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법 개정이나 생활지원금 문제를 보도할 때 인터뷰 대상자가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설명했음에도 정작 방송에서는 핵심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취재한 이후에도 해당 리포트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데스크에서 함께 점검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순사건은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채택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평화공원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80주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기적인 기획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여수MBC가 과거 70주기 특별다큐 등을 통해 여순사건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보다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밀집돼 있으면서 동시에 순천만 등 중요한 생태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순천에서 국제포럼이 열리고 생태 문제와 기업의 역할 등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지역의 산업과 생태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숙 위원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 국제포럼과 관련해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연에서 미래로’를 주제로 생태와 기업, 생태와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고 생태가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생태포용도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이 그동안 추진해 온 생태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순천에서는 자연의 권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생태법인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과 홍수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연을 인간의 이용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연의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려는 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과 새로운 대안이 방송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은 위원
여수세계섬박람회와 함께 진행한 GS칼텍스 예울마루 특별이벤트를 「어바웃 우리 동네」에서 장시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도 다리에 물이 차오르는 자연현상을 활용한 행사로, 단순히 관람객을 모으기보다는 섬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섬박람회가 관람객 수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행사의 본래 취지인 섬의 가치와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섬의 의미를 살린 콘텐츠가 보다 주목받았으면 합니다.
산업용수 문제도 계속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도체산업 등 신규 산업의 용수 수요가 늘어날 경우 기존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서산 대산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 등 타 지역의 산업용수 확보 사례도 함께 취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순사건 합동추념식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리는 행사인 만큼 주요 기관과 관계자들이 갖는 의미와 태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섬박람회 먹거리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장의 설명과 당시 운영상황 등 관련된 배경도 충분히 확인해 균형 있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콘텐츠 센터장
여순사건 추념식과 관련해 주요 인사들의 참석과 행사 중 이석 문제 등은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은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전남 동부권에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새로운 산업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정보와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과 사업기회를 분석해 실제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기회가 생겼을 때 중소기업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수MBC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획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규 위원
지난달 말씀드린 K-뉴딜 아카데미를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석유화학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내부적으로도 고용과 노사관계를 둘러싼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임금 ·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사내 협력업체와 관련된 교섭 문제 등 여러 현안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축소되면 원청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도급물량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역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산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사업 축소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구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고용안정 책임도 중요하지만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체계, 기업의 인력운용 여건 등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김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위원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순천과 여수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자치와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시민의 날은 단순히 가수를 초청해 공연하는 하루짜리 행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화합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자치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의 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다른 도시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여수 · 순천 · 광양 등 기초자치단체의 시민의 날 운영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섬박람회가 11월 초 종료되면 흥행 여부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사 준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조직위원회 사이에서 재정과 인력,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분담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콘텐츠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당초 행사 취지와 실제 운영이 얼마나 부합했는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앞으로 지방도시에서 비슷한 국제행사를 추진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 종료 이후 시설과 공간의 사후 활용 문제도 중요합니다.
연구용역에만 맡기기보다 지역의 역사와 섬 문화, 해양수산산업 등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박람회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사후 활용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여수MBC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시민의 날과 관련해 여수 · 순천 · 광양은 생활권이 가까운 만큼 각 도시가 서로 축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세 도시가 서로의 시민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김대희 위원님 의견에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날 행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보다는 공연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수여하는 시민의 상 역시 선정 과정과 상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수의 경우 여순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시기와 시민의 날 행사가 함께 놓여 있는 만큼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인식도 행사에 반영돼야 합니다.
주민자치와 지역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날의 의미와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데 여수MBC 보도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추가 설명이나 덧붙일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은 각 부서에서 잘 살펴보고 방송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산업과 고용 문제는 지역 지상파방송과 지역MBC가 처한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무겁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순천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등 지역대학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고, 청년이 남아야 지역도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대 국립의대 문제 역시 대학 한 곳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기업과 시민, 행정기관, 정치권이 함께 지역대학 발전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에서도 국립의대뿐 아니라 지역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인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지만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은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도 사측에서 잘 살펴 앞으로의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